

## 양육미혼모 자립지원사업의 네트워크 연구\* : 동방사회복지회 해피맘(HAPPY MOM)사업을 중심으로

이용우\*\*

### [요약]

본 연구는 동방사회복지회의 해피맘(HAPPY MOM) 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복합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미혼모 자립지원 네트워크의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피맘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내 조직 간의 다자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전체 네트워크(whole network)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피맘 사업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정보교환과 기관간협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구조적으로는 소수의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양육미혼모 자립지원사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양육미혼모, 동방사회복지, 해피맘, 미혼모 자립지원, 네트워크 분석

\* 본 논문은 “HAPPY MOM 미혼양육모 자립지원 방안 및 성과보고회”(2017.11)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완·발전시킨 연구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lywpms@kku.ac.kr

## I. 서론

전체 미혼모의 90% 이상이 입양을 선택했던 과거와 다르게 자녀의 양육을 결정하는 양육미혼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에 관한 조사(김혜영 외, 2010)에 의하면,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비율은 1998년 7.2%에서 2001년 11.0%, 2005년 31.7%, 2009년에는 66.4%로 뚜렷한 증가추세에 있다. 양육 미혼모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미혼모 정책은 미혼임산부의 임신·출산 및 위기사항에 대한 일시적 보호의 기초에서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강조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 연령의 상승 및 유급 노동 경험의 증가 등 미혼모 집단의 내적 다양성 확대는 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지속적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미혼모 관련 지형의 변화 속에서 미혼모의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은 전례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자녀양육, 심리정서, 취업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미혼모들이 경제적 자립에 이르는 것은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자원과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는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에 취약한 개별 시설의 자체적 대응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우며, 단일기관 서비스의 단편성과 비연속성을 넘어서는 통합적 접근과 지원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한다(김명하·조주연·정종원, 2013; 김지혜·장연진·성정현, 2012).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동방사회복지회가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어젠다 중심의 성과관리모델 개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해피맘(HAPPY MOM)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로 단편적인 의료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및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미혼모시설과는 달리, 해피맘 사업은 전국의 18개 미혼모관련 시설·기관이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공유, 자원 공유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협력하는 네트워크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실 오래전부터 사회복지분야의 시설·기관들은 자체 조직이 보유하지 못한 서비스의 양적·질적 측면을 다른 조직을 통해 보완해 왔으며,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왔다(유영준·이은정·장혜경·박경수, 2009). 다만 네트워크라는 용어보다는 연계, 조정, 협력, 협동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되

어 왔을 뿐이다(류기형·류영미·박병현, 2009; 손지현, 2016). 그러나 사회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욕구 다양화로 축약되는 최근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는 통합적 서비스에 대한 강조를 통해 인식적 또는 규범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증폭시켰다(김지혜 외, 2012; 서혜미·민소영, 2012; 손지현, 2016; 유영준 외, 2009).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기관 단위의 서비스를 넘어서는 다차원적 서비스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서비스제공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현장(예: 정신보건, 노인복지, 지역자활, 장애인복지 등)에서는 시설·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실태, 긍정적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금열, 2010; 김준기·이민호, 2006; 민소영, 2014; 서혜미·민소영, 2012; 손지현, 2016; 장연진, 2010; 최재성·강은나·이정은·조미형, 2014; 하지선, 2013). 이들 연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조직성과 및 조직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미혼모는 생계, 보건·의료, 자녀양육, 심리정서 등 복합적 욕구를 지니며, 경제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포괄적 형태의 자원과 서비스가 상호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누구보다 절실한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미혼모자 시설·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은 김지혜 외(2012)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전국의 18개 미혼모관련 시설·기관이 참여한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 현황을 네트워크의 내용과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다차원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양육미혼모 자립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 네트워크의 개념·정의

네트워크는 ‘여러 관계의 연결 체계’라는 의미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연계, 연결, 협력 및 조정 등의 개념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유영준 외, 2009; 최재성 외, 2014). 또한 조직(인간)과 조직(인간) 간의 연결 및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경우 다른 분야의 네트워크와 구별하여 사회연결망 또는 사회네트워크라는 보다 제한적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류은실, 2009).

네트워크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네트워크를 개인과 조직 또는 조직과 조직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한 하나의 조직 또는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의 구조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구축·유지를 위한 상호작용 활동 즉, 협력, 연결, 조정, 의뢰, 교환 등으로 네트워크를 규정하는 관점이다(김지혜 외, 2012; 민소영, 2014).

네트워크를 “자원, 기술, 사회관계, 지식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조직들의 공식적·비공식적 연결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의(Barker, 1999)와 “사회복지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들의 공식 혹은 비공식적 협력체계”라고 개념화한 서혜미·민소영(2012)의 정의는 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환경 내의 다수의 다른 조직들과 맺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네트워크를 규정하고 있는 장연진(2011)의 정의는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네트워크의 동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흐름에 따라 여러 연구들이 네트워크를 조직간 상호작용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지혜 외, 2012; 민소영, 2014; 하지선, 2013).

이와 같은 네트워크 개념에 대한 구분은 ‘연계’를 관련 맺고 있는 개인 또는 조직 간의 상호작용으로, ‘네트워크’는 조직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의 체계로 구별하고 있는 박경숙(2008)의 접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에 대한 이러한 두 가

지 개념은 하나의 관점이 다른 관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거나 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용’과 ‘구조’로 구성되고 분석되어지는 네트워크의 속성·특성에 대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 2. 네트워크 분석: 내용과 구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에서 교환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content) 분석과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형태는 어떠한가를 검토하는 구조(structure) 분석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김연아·강용주·황수정·박치성, 2008; 김지혜 외, 2012; 민소영, 2014; 박치성, 2006; 서혜미·민소영, 2012; 장연진, 2011; 하지선, 2013). 이는 사회연결망 분석은 관계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Streeter와 Gillespie(1993)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Streeter와 Gillespie(1993)에 의하면, 관계적 특성은 네트워크에서 교환되는 내용과 관련된 네트워크 고유의 특성을 의미하며, 구조적 특성은 네트워크 내 개인 또는 조직 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역할을 나타낸다.

실제로 한국사회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 분석은 대체적으로 네트워크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연아 외, 2008; 김준현, 2009; 김지혜 외, 2012; 민소영, 2014; 서혜미·민소영, 2012; 이혜원·우수명, 2005; 장연진, 2011; 최재성 외, 2011; 하지선, 2013). 먼저 네트워크의 내용(content)은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 및 조작화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범주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 디딤돌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서혜미와 민소영(2012)은 네트워크 내용을 정보교환, 자원교환 및 클라이언트 의뢰의 3가지로 세분화하였으며, 김재환(2006)은 서울·경기 지역의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자원교환, 정보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협의·조정, 판로 및 시장 개척의 5가지로 네트워크 내용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내용의 가장 보편적인 범주화는 정보교환, 사례의뢰, 자원교환, 및 기관간협의의 4가지로 수렴되고 있으며(하지선, 2013), 실제로 많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다(김인숙·우아영, 2003; 김지혜 외, 2012; 류기형 외, 2009; 민소영, 2014; 하지선, 2013).

사회복지 조직들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분석은 중심도(centrality)와 밀도

(density)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김인숙·우아영, 2003; 서혜미·민소영, 2012; 손지현·류기형, 2012; 이주현·박치성, 2010; 장연진, 2010; 최재성 외, 2011; 하지선, 2013). 중심도는 개별 기관이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계량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어느 기관이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나타낸다. 동시에 네트워크 구조가 소수의 핵심기관에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중심도는 여러 측면 중에서 강조되는 내용에 따라 연결(다선)중심도(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도(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도(between centrality)로 구분된다(곽기영, 2017; 이수상, 2016; Wasserman & Faust, 1994).

먼저 연결중심도는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내 다른 행위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관계의 총수로 측정하며, 개별 기관이 네트워크 내의 다른 기관들과 얼마나 활발한 연계활동을 했는가를 보여준다. 근접중심도는 전체 네트워크 내의 다른 모든 행위자에게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정도를 계측한 것으로서, 개별기관이 다른 기관들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연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네트워크 내 영향력 및 정보력에 대해 얼마나 접근이 용이한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매개중심도는 네트워크 내의 다른 기관들이 보다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의 흐름에 있어 중재자 또는 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곽기영, 2017; 이수상, 2016; Wasserman & Faust, 1994).

네트워크 구조의 또 다른 측면인 밀도는 네트워크에 존재 가능한 관계의 총수를 기준으로 실제 맺어진 관계 수의 비율로서, 네트워크 내 개별 기관들이 다른 기관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곽기영, 2017; 이수상, 2016; Wasserman & Faust, 1994). 즉, 높은 밀도는 네트워크 내 조직들 사이에 연계가 많으며 정보와 자원이 활발히 전달됨으로써 기관들 간 신뢰 형성이 용이함을 의미한다(서혜미·민소영, 2012).

### 3. 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양적 수요의 증가와 욕구의 질적 다양화는 네트워크의 사회적 중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이에 비례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사회복지분야의 연구도 양적·질적으로 확장 추세에 있다. 우리사회의 사회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연구의 비교적 초기에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실천현장에서 네트워크 필요성 및 중요성을 주장하는 규범적 연구를 들 수 있다(김종진, 2004; 김희연·한인숙, 2002; 박경숙, 1996; 박정호, 2001; 박태영, 2008; 심재호, 2000; 이재완, 2007). 예를 들어, 심재호(2000)는 지역사회 내 서비스 중복과 낭비 그리고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복지네트워크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김종진(2004)은 장애인 고용서비스 제공기관들 간의 연계·협력 부족으로 기관들 사이에 중복과 갈등이 발생하기에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네트워크의 성과를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품질, 조직성과, 조직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도출하는 연구이다(김준기·이민호, 2006; 김준현, 2009; 남승연, 2012; 서혜미·민소영, 2012; 장연진, 2010; 최영광·전동일, 2011; 홍선미·하경희, 2009). 전국 94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김준기와 이민호(2006)는 조직의 전반적 네트워크 수준이 사회복지관의 이용자 규모로 측정된 조직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남승연(2012)의 연구는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규모가 자활성공률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장연진(2010)은 서울지역 여성복지조직 간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의 근접중심도가 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마지막 유형은 사회서비스 네트워크의 실태와 특성을 연계 내용, 구조적 특성, 네트워크 수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김언아 외, 2008; 김인숙·우아영, 2003; 김재환, 2006; 김지혜 외, 2012; 박경숙, 2008; 유영준 외, 2009; 유태균·김자옥, 2001; 이혜원·우수명, 2005; 최재성 외, 2011; 하지선, 2013). 전국의 57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에서 하지선(2013)은 사례의뢰, 정보교환, 기관간협의, 자원교환을 중심으로 연계의 내용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동시에 네트워크 중심조직 추출과 관계양상의 집단 구획화를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지역

사회네트워크 지원사업을 분석한 최재성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이 핵심조직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전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가 안정적인수록 전체 네트워크의 효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트워크 내 중심도가 높은 핵심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방사회복지회의 해피맘 사업에 참여한 미혼모 시설·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조적 특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미혼모관련 조직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으로는 전국의 32개 미혼모자시설을 대상으로 한 김지혜 외(2012)의 연구가 있으나, 본 연구와는 분석의 목적에서 구분된다. 본 연구는 하나의 전국적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미혼모 시설·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연계의 내용 및 구조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김지혜 외(2012)의 연구는 32개 미혼모자시설이 각각의 지역사회와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해피맘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17개 미혼모관련 시설·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해피맘 사업은 동방사회복지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2015년-2017년 3년 동안 전국의 17개(2017년 기준) 미혼모 시설·기관과 함께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수행했던 양육미혼모 지원사업이다<sup>1)</sup>. 해피맘 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미혼모관련 시설·기관이 모여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성과와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복잡적 욕구를 지닌 양육미혼모에게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어려웠던 개별 시설·기관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전문적 노하우와 자원

1) 해피맘 사업은 2015년 거점기관인 3개의 권역센터(서울·경기, 충청·호남, 대구·경상 권역)에 소속된 15개 수행기관으로 시작하여 2017년 통합된 2개의 권역센터의 17개 수행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양육미혼모에게 자립을 위한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훈련, 창업훈련, 양육코칭, 라이프코칭 등 다양한 다차원적 지원을 제공하였음.

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양육미혼모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동방사회복지회, 2017).

조사내용은 네트워크의 도움도 및 필요성, 네트워킹의 장애요인, 네트워크 성과 등 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진 네 가지 상호작용 유형 각각에 대한 발신·수신의 횟수를 포함하였다. 아래의 <표1>에 제시되어 있듯이,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내용을 정보교환·사례의뢰·자원교환·기관간협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구체적 정의는 <표1>과 같다. 조사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다.

<표1> 네트워크의 내용(contents)

| 네트워크 내용(content) | 네트워크 내용의 정의                                                                                             |
|------------------|---------------------------------------------------------------------------------------------------------|
| 정보교환 네트워크        | 기관운영, 프로그램 정보 등에 대한 자료 공유, 조언, 아이디어 교환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경우를 의미함                |
| 사례의뢰 네트워크        | 전화, 팩스 또는 대면접촉 등을 통해 다른 기관에 대상자를 의뢰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상자를 의뢰받는 경우를 의미함                                     |
| 자원교환 네트워크        | 인적교환(자원봉사자 교류, 직원 교류 등), 물적교환(시설대여, 기자재 지원, 차량대여 등), 재정교환(재정지원, 후원금, 후원물품 등)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경우를 의미함        |
| 기관간협의 네트워크       |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협의, 공동프로젝트, 공동프로그램, 기관 간 협약서 작성, 공동성명 등 기관의 운영, 서비스 및 클라이언트에 관하여 기관 간 협의를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경우를 의미함 |

##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시설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자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전체 네트워크(whole network) 분석을 시도하였다. 해피맘 사업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식적·의도적으로 구축된 목표지향적인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전체 네트워크의 특징을 지닌다(최재성 외, 2014).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중 중심도와 밀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김인숙·우아영, 2003; 서혜미·민소영, 2012; 이주현·박치성, 2010; 이혜원·우수명, 2005; 최재성 외, 2011).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혼모자시설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분석한 김지혜 외

(2012)의 연구에서는 특정 조직의 관점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조직·자원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자아중심적 네트워크(ego-centric network) 분석이 활용되었다. 이는 연구의 분석적 초점이 ‘각 기관이 국지적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시설·기관들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해피맘 네트워크는 하나의 닫힌 구조로서 완전 네트워크라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와 UCINET6를 활용하였다.

## IV. 네트워크 분석결과

### 1. 조사대상기관의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조사대상 기관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2>와 같다. 전국을 3개의 권역(서울·경기, 충청·호남, 대구·경상)으로 구분했던 2016년도와는 달리, 해피맘 사업의 3차 년도에서는 전국을 서울·경기와 중·남부의 2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1개의 기관을 더 포함하고 있는 중·남부 권역이 전체 기관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조사대상 기관의 일반적 현황

| 기관 특성                |                   | 빈도          | 퍼센트(%) |
|----------------------|-------------------|-------------|--------|
| 지역                   | 서울·경기 권역          | 8           | 47.1   |
|                      | 중·남부 권역           | 9           | 52.9   |
| 기관<br>유형             | 종합사회복지관·건강가정지원센터  | 1           | 5.9    |
|                      | 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11          | 64.7   |
|                      |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1           | 5.9    |
|                      | 기타                | 4           | 23.5   |
| 사업<br>참여<br>기간       | 2017년부터 참여        | 2           | 11.8   |
|                      | 2016년부터 참여        | 3           | 17.6   |
|                      | 2015년부터 참여        | 12          | 70.6   |
| 예산 규모(2016년도 기준 중위값) |                   | 378,020(천원) |        |
| 정규직원 수               |                   | 4.62명       |        |
| 근무경력                 |                   | 9년 1개월      |        |

기관유형의 경우 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11개소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의 약 24%를 차지하는 기타유형에는 미혼모관련 협회, 모자가족복지시설 및 동방사회복지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대상기관을 사업 참여기간에 따라 구분해 보면, 2015년부터 3년째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12개소(7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 신규로 참여한 기관의 비율은 1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기관들의 전반적 규모를 예산과 정규직원 수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예산(2016년도 기준)의 중위값은 약 3억 8천만 원이었으며, 평균적으로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 분석에 앞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와 관련한 몇 가지 인식을 조사하였다<sup>2)</sup>. 먼저 <표3>은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 활동이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이라는 사업 목표의 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며,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네트워크의 전반적 도움에 대한 인식은 평균 4.3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관간협의’(Mean=4.50, SD=.60)와 ‘정보교환’(Mean=4.41, SD=.85)이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에 보다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성에서도 ‘기관간협의’(Mean=4.67, SD=.48)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수의 인원과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미혼모관련 시설·기관의 특성상 단독으로 진행 불가능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공동 프로그램, 공동 프로젝트 및 공동성과 관리 등의 기관간협의를 네트워크를 통해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고자 하는

2)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는 분석단위가 조직이기에 기관·시설별 하나의 조사표가 할당되어 각 기관의 네트워크 담당자가 응답하였음. 반면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 측면에 대한 인식조사는 기관·시설별 복수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총 2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두 집단 간의 특성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예를 들어, 연령은 37.6세로 동일하였으며 사회복지경력도 네트워크 담당자 집단이 약 9년 2개월로 전체집단의 9년 4개월에 비하여 약 2개월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해피맘 사업의 중요한 장점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3〉 목표달성에 대한 도움정도와 필요성

|         | 도움정도 |      | 필요성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정보교환    | 4.41 | .85  | 4.62 | .59  |
| 사례의뢰    | 3.50 | 1.47 | 4.25 | .97  |
| 자원교환    | 4.18 | .79  | 4.43 | .68  |
| 기관간 협의  | 4.50 | .60  | 4.67 | .48  |
| 네트워크 전반 | 4.36 | .79  | 4.67 | .68  |

다음의 〈표4〉는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 활동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결과이다<sup>3)</sup>.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네트워크의 장애요인은 ‘자체 기관의 고유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네트워크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딜레마를 제시한다. 미혼모관련 시설·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며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상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네트워크에 대한 기관차원의 욕구와 필요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항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다각도의 활동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는 추가적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체 기관의 고유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 다음으로는 ‘기관 간 지향하는 가치 및 이념의 차이’와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 및 신뢰의 부족’이 중요한 네트워크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구축된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기관·시설 사이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상호이해와 수용이 필요함을 시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표4〉는 네트워크 장애요인 유형 중 실무자들이 1-3순위로 응답한 내용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정리한 결과임.

〈표4〉 네트워크의 장애요인

| 네트워크 장애요인의 유형                 | 응답비율  |
|-------------------------------|-------|
| 기관 간 지향하는 가치 및 이념의 차이         | 14.8% |
|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 및 신뢰의 부족         | 10.9% |
| 네트워크에 대한 기관(기관장 및 실무자)의 인식 부족 | 7.0%  |
| 자체 기관의 고유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       | 50.5% |
| 개인적인 친분관계(예: 인맥)의 형성 부족       | 1.6%  |
| 동등한 관계형성의 어려움(예: 형식적·수직적 관계)  | 4.7%  |
| 기관의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경향     | 1.6%  |
| 네트워크 중심 조직의 부재                | 7.8%  |
| 기타                            | 1.6%  |

해피맘 사업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조사의 마지막은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네트워크 성과이다. Provan과 Milward(2001)의 네트워크 성과지표와 지은구(2006)의 지역사회역량강화방안 연구를 참조하여 김신열과 정하나(2015)가 구성한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표5〉 네트워크 성과에 대한 인식

| 네트워크 성과 항목                     | 평균   | 표준 편차 |
|--------------------------------|------|-------|
| 양육미혼모 및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 향상되었다 | 4.22 | .80   |
| 지역사회주민을 동원하는 기술이 향상되었다         | 3.65 | 1.07  |
| 지역사회의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기술이 향상되었다    | 3.87 | .76   |
|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교류하는 지식 및 기술이 향상되었다 | 4.00 | .80   |
| 네트워크 참여 전 네트워크에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었다  | 3.87 | .87   |
| 합계                             | 3.92 | .76   |

〈표5〉의 항목 중 해피맘 사업의 실무자들은 ‘양육미혼모 및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 향상되었다’(Mean=4.22, SD=.80)와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교류하는 지식 및 기술이 향상되었다’(Mean=4.00, SD=.80)를 가장 큰 성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한 5문항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성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평균 3.92점 ( $SD=.76$ )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여 성과를 조사한 김신열·정하나 (2015)의 결과값인 3.82( $SD=.60$ )임을 고려하면, 해피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네트워크 성과는 비교적 우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네트워크 분석

#### 1) 네트워크 내용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 내용을 <표1>의 구분에 따라 정보교환, 사례의뢰, 자원교환 및 기관간협의로 검토하였으며, 방향성의 파악을 위해 네트워크의 각 유형별로 발신(의뢰함)과 수신(의뢰받음)으로 세분화하였다. 발신은 외부로 네트워크를 요청하는 것으로 기관의 적극성을, 수신은 요청받는 횟수로 해당기관의 인기도, 자원, 역량 등을 반영한다(김지혜 외, 2012).

<표6>에 의하면, 해피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지난 6개월 동안(2017년 3월 1일 - 2017년 9월 30일) 평균 네트워크 연계횟수는 발신이 약 46회, 수신 약 40회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정보교환이 발신 25.88회, 수신 22.35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관간협회가 발신 13.24회, 수신 10.6회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사례의뢰는 발신 1.47회, 수신 0.7회로 가장 연계·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네트워크 형태로 조사되었다.

네트워크의 유형 중 정보교환 네트워크가 활발히 나타난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김언아 외, 2008; 김지혜 외, 2012; 박치성, 2006; 서혜미·민소영, 2012; 장연진, 2011; 하지선, 2013).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교환 다음으로 연결횟수가 높았던 것은 기관간협의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 → 대상자의뢰 → 물질·인적자원의 교류 → 정기모임 및 공동사업'의 순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의 발달모형(송민경·김주현·이현주, 2010)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양육미혼모의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동대처노력(예: 공동 프로젝트, 권역별 심화교육 등)을 많이 기울이는 해피맘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6〉 네트워크 활동현황

|         | 발신(의뢰함) |       | 수신(의뢰받음)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정보교환    | 25.88   | 32.62 | 22.35    | 27.89 |
| 사례의뢰    | 1.47    | 2.06  | 0.70     | 1.31  |
| 자원교환    | 5.29    | 9.60  | 6.47     | 14.37 |
| 기관간협의   | 13.24   | 28.33 | 10.06    | 16.55 |
| 네트워크 전반 | 45.88   | 62.41 | 39.59    | 42.15 |

다음의 〈표7〉은 네트워크의 내용별 수·발신 횟수를 기관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해피맘 사업의 권역별 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남부 권역이 서울·경기 권역에 비하여 네트워크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 운영, 프로그램 정보 등에 대한 자료 공유, 조언, 아이디어 교환 등을 포함한 정보교환 네트워크가 중·남부 권역에서 활발히 연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서울·경기 권역의 경우, 기관간협의의 발신에서 중·남부 권역보다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피맘 사업의 기관유형은 1개의 중앙센터, 2개의 권역센터 및 일반 수행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중앙·권역센터와 일반수행기관으로 나누어 네트워크 활동을 살펴보았다. 〈표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네트워크 유형에서 중앙·권역센터에서 수·발신 횟수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가 중앙 및 권역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7〉 기관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활동 현황

(수·발신 횟수)

|          | 정보교환  |       | 사례의뢰 |      | 자원교환 |      | 기관간협의 |       |
|----------|-------|-------|------|------|------|------|-------|-------|
|          | 발신    | 수신    | 발신   | 수신   | 발신   | 수신   | 발신    | 수신    |
| 지역       |       |       |      |      |      |      |       |       |
| 서울·경기 권역 | 21.25 | 16.00 | 1.25 | 0.38 | 9.00 | 4.88 | 14.25 | 6.38  |
| 중·남부 권역  | 30.00 | 28.00 | 1.67 | 1.00 | 7.00 | 7.89 | 12.33 | 13.33 |
| 기관유형     |       |       |      |      |      |      |       |       |

|         |       |       |      |      |       |       |       |       |
|---------|-------|-------|------|------|-------|-------|-------|-------|
| 중앙·권역센터 | 76.33 | 51.00 | 1.67 | 0.33 | 18.67 | 7.33  | 60.33 | 10.07 |
| 일반 수행기관 | 15.07 | 16.21 | 1.43 | 0.78 | 6.28  | 2.43  | 3.14  | 10.00 |
| 참여기간    |       |       |      |      |       |       |       |       |
| 1-2년차   | 13.60 | 10.80 | 0.40 | 0.40 | 1.40  | 2.00  | 5.80  | 5.60  |
| 3년차     | 31.00 | 27.17 | 1.92 | 0.83 | 6.92  | 8.33  | 16.33 | 11.92 |
| 예산규모    |       |       |      |      |       |       |       |       |
| 4천만원 미만 | 31.44 | 28.11 | 1.11 | 0.22 | 6.00  | 3.00  | 10.78 | 3.33  |
| 4천만원 이상 | 19.62 | 15.88 | 1.88 | 1.25 | 5.62  | 10.38 | 16.00 | 17.62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피맘 사업은 2017년도에 3년차로 접어들었으며 전체 조사 대상 기관의 약 70%가 2015년도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 참여기간에 따라,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해보면 ‘3년차’에 해당하는 수행기관들이 ‘1-2년차’의 수행기관들 보다 눈에 띄게 활발한 연계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네트워크의 형성과 성장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예산규모에 따른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도 예산 4억 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7>에 의하면, 정보교환 네트워크는 예산규모가 4억 원 미만인 기관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된 반면, 자원교환, 사례의뢰 및 기관간협의 네트워크는 4억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기관들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기관들의 경우, 자원교환과 기관간협의 네트워크에서 수신보다 발신 횟수가 2배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자원 및 협의를 요청받기 보다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서 소규모 기관의 상대적 열악함과 네트워크 참여동기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 2) 네트워크 구조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 구조를 밀도와 중심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밀도는 전체 네트워크 내 연계가능한 관계의 총수 중 현재 존재하는 관계의 총수 비율로서 네트워크의 강도를 나타낸다. 밀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내 연계와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조직 간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Wasserman & Faust, 1994).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 밀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8>과 같다. 먼저 해피맘 사업의 전체 네트워크의 밀도는 0.42로

나타났다. 이는 밀도의 최댓값이 1임을 고려할 때, 최대치의 약 42% 가량의 연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sup>4)</sup>.

〈표8〉 해피맘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

|    | 정보교환 | 사례의뢰 | 자원교환 | 기관간협의 | 총연계  |
|----|------|------|------|-------|------|
| 밀도 | 0.35 | 0.06 | 0.18 | 0.22  | 0.42 |

네트워크 유형별로는 정보교환이 가장 높은 밀도(0.35)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례의뢰가 가장 낮은 밀도를 기록하고 있다. 즉,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례의뢰를 통한 네트워크 활동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 구조를 세 가지 중심도(centrality)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먼저 〈표9〉는 해피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연결중심도의 상위 순위(1-5순위)를 기록한 기관들을 네트워크 유형별로 제시한 것이다. 연결중심도는 특정 기관이 네트워크 내에서 얼마나 활발한 연계활동을 수행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많은 연결 횟수를 가질수록 더 많은 자율성과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이수상, 2016; Wasserman & Faust, 1994).

〈표9〉 기관별 연결중심도

| 순위 | 정보교환 |       | 사례의뢰 |       | 자원교환 |       | 기관간협의 |       | 연계총합 |       |
|----|------|-------|------|-------|------|-------|-------|-------|------|-------|
|    | 기관   | 중심도   | 기관   | 중심도   | 기관   | 중심도   | 기관    | 중심도   | 기관   | 중심도   |
| 1  | N    | 0.844 | A    | 0.188 | A    | 0.750 | A     | 0.688 | A    | 0.969 |
| 2  | A    | 0.813 | I    | 0.125 | H    | 0.250 | N     | 0.469 | N    | 0.875 |
| 3  | H    | 0.531 | N    | 0.094 | N    | 0.188 | H     | 0.313 | H    | 0.563 |
| 4  | O    | 0.469 | K    | 0.094 | G    | 0.188 | J     | 0.281 | G    | 0.500 |
| 5  | G    | 0.438 | L    | 0.094 | C    | 0.156 | L     | 0.281 | O    | 0.500 |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사업을 분석한 최재성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3곳 지역사회(여수·청원·금천)의 네트워크 밀도는 0.46-0.91이었고, 강남구 디딤돌 사업을 분석한 서혜미·민소영(2012) 연구의 네트워크 밀도는 0.82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해서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 밀도는 다소 낮은 수치로 보이나, 상기한 네트워크들과는 달리 해피맘 사업의 범위는 전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9〉에 의하면, 다소의 순서상 차이는 있으나 네트워크 유형에 관계없이 세 기관(A, N, H)이 연결중심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세 조직이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계를 맺고 있으며, 따라서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높은 자율성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근접중심도를 활용하여 해피맘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표10〉과 같다. 근접중심도는 개별 기관이 네트워크 내의 다른 기관들과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근접중심도가 높을수록 즉 다른 기관들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함을 의미한다(곽기영, 2017; 이수상, 2016; Wasserman & Faust, 1994). 〈표10〉에 의하면, 근접중심도의 측면에서도 세 기관(A, N, H)이 네트워크 모든 유형에서 최상위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연결중심도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A, N, H의 세 기관은 해피맘 사업에서 가장 활발한 연계·교환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의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네트워크 내 영향력, 권력 및 상대적 우월 지위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기관별 근접중심도

| 순위 | 정보교환 |       | 사례의뢰 |       | 자원교환 |       | 기관간협의 |       | 연계총합 |       |
|----|------|-------|------|-------|------|-------|-------|-------|------|-------|
|    | 기관   | 중심도   | 기관   | 중심도   | 기관   | 중심도   | 기관    | 중심도   | 기관   | 중심도   |
| 1  | N    | 0.881 | A    | 0.188 | A    | 0.771 | A     | 0.764 | A    | 0.971 |
| 2  | A    | 0.864 | I    | 0.140 | H    | 0.485 | N     | 0.578 | N    | 0.900 |
| 3  | H    | 0.681 | K    | 0.139 | N    | 0.466 | H     | 0.508 | H    | 0.700 |
| 4  | G    | 0.649 | L    | 0.125 | C    | 0.456 | M     | 0.489 | G    | 0.671 |
| 5  | O    | 0.619 | C    | 0.122 | P    | 0.448 | K     | 0.479 | O    | 0.668 |

연결중심도와 근접중심도 분석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통된 점은 정보교환, 자원교환 및 기관간협의 네트워크에 비해서 사례의뢰 네트워크의 경우, 중심적인 기관도 다소 상이하며 무엇보다 중심도의 절대값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네트워크의 내용 및 밀도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서, 해피맘 사업의 다른 네트워크 유형에 비해 사례의뢰가 매우 저조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 강남구 디딤돌사업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서혜미·민소영(2012)의 연구에서도 사례의

되는 정보교환 등의 다른 네트워크 유형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서혜미와 민소영은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된 정보·자원으로 자체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례의뢰의 유발요인이 감소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본 연구의 결과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매개중심도를 이용하여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1>과 같다. 매개중심도는 특정기관이 네트워크 내 다른 기관들의 관계형성에 얼마나 매개자 또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매개중심도가 높은 기관은 네트워크 내의 다른 기관들이 정보·자원을 교환하고자 할 때 거쳐야만 하는 다리로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손동원, 2002; 이수상, 2016; Wasserman & Faust, 1994).

<표11> 기관별 매개중심도

| 순위 | 정보교환 |       | 사례의뢰 |       | 자원교환 |       | 기관간협의 |       | 연계총합 |       |
|----|------|-------|------|-------|------|-------|-------|-------|------|-------|
|    | 기관   | 중심도   | 기관   | 중심도   | 기관   | 중심도   | 기관    | 중심도   | 기관   | 중심도   |
| 1  | N    | 0.296 | A    | 0.046 | A    | 0.536 | A     | 0.524 | A    | 0.321 |
| 2  | A    | 0.275 | K    | 0.025 | H    | 0.119 | N     | 0.197 | N    | 0.202 |
| 3  | H    | 0.143 | I    | 0.021 | N    | 0.032 | H     | 0.183 | H    | 0.054 |
| 4  | G    | 0.054 | L    | 0.016 | P    | 0.022 | K     | 0.013 | G    | 0.032 |
| 5  | O    | 0.030 | N    | 0.013 | J    | 0.021 | M     | 0.011 | O    | 0.020 |

<표11>의 결과에 의하면, 해피맘 네트워크의 매개중심도 상위 기관은 앞서 살펴본 연결중심도와 근접중심도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심도의 절대값에 초점을 두고 매개중심도의 결과를 검토하면, A기관을 제외하면 해피맘 사업에서 매개나 조정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소규모로 운영되는 미혼모 시설·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양육미혼모의 욕구 그리고 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증가는 미혼모관련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그 어느 때보다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여, 동방사회복지회의 해피맘 사업은 전국의 17개 미혼모 시설·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양육미혼모에게 자립을 위한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해피맘 사업은 단 3년간의 시범운영에도 불구하고, 전체 참여자의 약 31%가 취·창업에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동방사회복지회, 2017). 하지만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양육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보완의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혀진 해피맘 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반적인 네트워크가 소수의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심도에 따라서 핵심 또는 유력기관이 상이하게 나타나지 않고, 모든 중심도 분석의 최상위를 차지한 중심그룹(A, N, H)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들 세 조직은 해피맘 중앙센터와 두 곳의 권역센터를 가리킨다. 네트워크 내 허브기관이 존재할 경우 허브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집중될수록 네트워크 효과성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Provan & Milward, 1995)를 고려하면,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중심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심조직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네트워크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기에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조직 이외 기관들의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의 매개 또는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향후 전체 네트워크에서 매개 또는 중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발견·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매개 역할을 하는 기관은 허브조직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감소시킴으로써 네트워크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내 조직들 간의 관계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의 볼륨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네트워크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네트워크가 갖는 다양한 효과(예: 서비스 만족도의 증가, 조직성과의 향상,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가 등)를 경험적으로 증

명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또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해피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사업목표의 성취에 네트워크가 매우 도움이 되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교환, 사례의뢰, 자원교환, 기관간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활동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중한 업무에 더해진 또 하나의 부담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재적 소진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조직 내 인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네트워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된다는 연구결과(김지혜 외, 2012; 장연진, 2010)를 고려해 보면, 향후 네트워크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기관의 기본적인 인적자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양육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동방사회복지회의 해피맘 사업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수행된 사업이기에, 해피맘 사업이 지난 3년간 보여준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우수한 성과의 지속은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양육미혼모의 자립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는 전체적인 통합과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허브조직의 존재 속에서 기관들 간의 체계적인 자원의 연계·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는 지속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공적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되어야 하는데,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인권진흥원도 하나의 준거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해피맘 사업에 참여한 17개 미혼모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전체 네트워크(whole network)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해피맘 사업이 양육미혼모의 자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계획적으로 구축된 목표지향적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반쪽밖에 보여줄 수 없다. 사업에 포함된 각각 미혼모 시설·기관이 각자의 지역사회에 자생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자원 및 조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미혼모 시설·기관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은 전체 네트워크 분석과 자아중심적 네트워크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해피맘 사업의 네트워크를 내용과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향후 양육미혼모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보다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어떤 특성이 미혼모의 성장·변화 및 조직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곽기영. 2017. 『소셜네트워크분석』 서울: 도서출판 청람.
- 김금열. 2010. “장기요양대상노인의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30(4). 1027-1044.
- 김명하·조주연·정종원. 2013. “미혼모 지원 정책 및 청소년 교육의 현재와 미래”. 『정부와 정책』 5(2). 71-90.
- 김신열·정하나. 2015.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참여자의 자원의존성과 기관장의 지지가 네트워크 활동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2). 71-104.
- 김언아·강용주·황수정·박치성. 2008.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 연구: 서울지역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2(3). 135-167.
- 김인숙·우아영. 2003. “부천지역 여성복지 관련 조직의 네트워크 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3. 179-207.
- 김재환. 2006. “자활후견기관들의 기관간 네트워크 활동 중심성 비교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6(2). 133-169.
- 김종진. 2004. “장애인 고용정책” 『직무연수』 137-151.
- 김준기·이민호. 2006.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 조직 효과성”. 『행정논총』 44(1). 91-126.
- 김준현. 2009. “지역자활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탐색적 분석: 서울, 부산,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1). 339-366.
- 김지혜·장연진·성정현. 2012. “미혼모자시설의 서비스 네트워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4). 263-296.
- 김혜영·이미정·이택면·김은지·선보영·장연진. 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남승연. 2012.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와 자활사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9(4). 137-174.
- 동방사회복지회. 2017. HAPPY MOM 유레카 - 성과관리를 적용한 양육모지원사업 “엄마가 행복한 HAPPY MOM”
- 류기형·류영미·박병현. 2009.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부

- 산광역시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1-31.
- 류은실. 2009.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크 분석: 서울 양천구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소영. 2014. “기관 간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만족도 관계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경기도의 지역기반 정신보건서비스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2), 89-111.
- 박경숙. 2008.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조 - 공공복지행정기관, 민간 노인복지기관, 공공보건기관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5, 245-269.
- 박치성. 2006. “사회서비스 비영리조직들의 협력 패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40(4), 353-376.
- 서혜미·민소영. 2012. “지역기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성 연구”. 『서울도시연구』 13(2), 89-108.
- 손동원. 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 손지현. 2016.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3(2), 215-239.
- 손지현·류기형. 2012. “사회복지·관련기관들의 참여동기가 네트워킹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산 금정구 해피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385-408.
- 송민경·김주현·이현주. 2010. “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의 발달단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201-229.
- 심재호. 2000.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3, 151-171.
- 유영준·이은정·장혜경·박경수. 2009. “지역복지 네트워크 수준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1(4), 113-133.
- 유태균·김자옥. 2001.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간의 네트워크 특성 및 네트워크 상에서의 중심자적 역할정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7(2), 20-48.
- 이수상. 2016.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재완. 2007. “지역복지네트워크의 의미와 실천사례 연구: ‘천안시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9(1), 29-52.
- 이주현·박치성. 2010. “지역사회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행정학보』 44(3). 1-35.
- 이혜원·우수명. 2005.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 간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강서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119-146.
- 장연진. 2011. “서울 지역 여성복지조직간 네트워크 구조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3. 161-195.
- 장연진. 2010. “여성복지조직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과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313-343.
- 지은구. 2006. “지역사회 역량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9. 47-75.
- 최영광·전동일. 2011.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네트워크 중심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1. 65-90.
- 최재성·강은나·이정은·조미형. 2014. “지역중심 사회복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디딤돌 및 희망온돌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2). 155-180.
- 최재성·이준영·김신열·박소정·이수연·안은영. 2011. “다중이해관계자 관점에 근거한 지역사회 전체네트워크 효과성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3(1). 57-84.
- 하지선. 201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의 내용과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2). 45-80.
- 홍선미·하경희. 2009.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 통합 사례관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안산 통합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1). 29-61.
- Barker, R. (1999). The Social Work Dictionary. 4th Ed. Washington DC: NASW Press.
- Provan, K., and Milward, H. (2001). “Do networks really work? A framework for evaluating public-sector organizational network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4): 414-423.
- Provan, K., and Milward, H. (2001). “A preliminary theory of network effectiveness: A comparative study of four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s” Administrative Science Review, 40: 1-33.
- Streeter, L., and Gillespie, F. (1993). “Soci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6(1/2): 201-222.
- Wasserman, S. and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 A Network Analysis of the Happy Mom

Yongwoo Le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service network of the Happy Mom and thus present effective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that would assist child-rearing unwed mothers' self-sufficiency. With the utilization of the whole network analysis,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and structures of the network of the Happy Mom where 17 institutions participated.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 network of the Happy Mom was operated 1) mainly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and inter-institutions consultation and 2) by a couple of herb institutions that were highest-ranked in the all types of centrality. Finally, the study concluded with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moting child-rearing unwed mothers' self-sufficiency and integration into the society.

Key words: child-rearing unwed mothers, Happy Mom, assistance for self-sufficiency, network, network analysis

[논문투고일: 2018.06.30, 심사일: 1차 - 2018.08.10 / 2차 - 2018.08.15, 심사완료일: 2018.08.20]

---

\* Konkuk University, Professor